

투자전략 아이디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중국의 수출입

중국 투자전략

이영원

02) 739-5848

youngwon@

R.A

정상휘

02) 6742-3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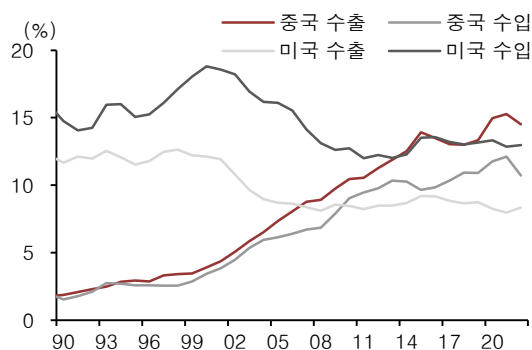
wallstguy@
 heungkuksec.co.kr

성장에 제동이 걸린 중국 무역

세계 교역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무역이 2022년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세계 교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90년대 이후 전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의 교역시장 비중은 지난 21년에 수출시장에서 15.26%, 수입시장에서 12.12%를 기록하며 세계 1위 교역국의 지위를 뚜렷이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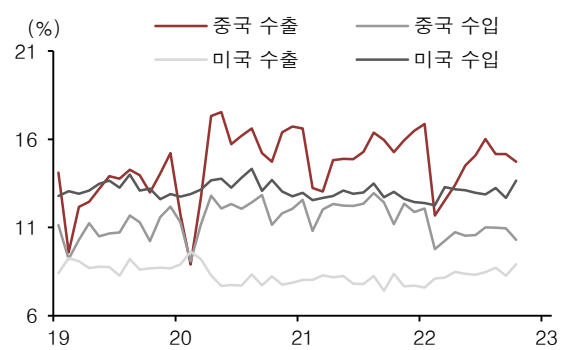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중국의 비중은 미-중간의 무역분쟁, COVID-19 등의 영향을 받으며 2018년에 이어 2022년에는 수출, 수입시장에서 모두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난 2022년 반복된 경제 봉쇄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향후 세계 교역에서 중국의 입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림 1 세계교역에서 중국, 미국의 비중 추이(장기)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세계교역에서 중국, 미국의 비중 추이(단기)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무역 구조의 특징

중국, 특정국 의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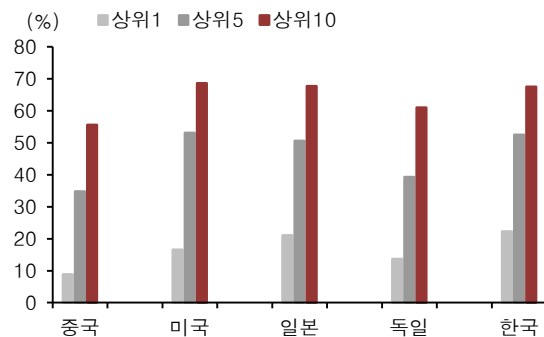
중국은 90년대 세계 교역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점유율을 가파르게 증가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다른 대형 교역국과 비교해 무역 구조, 공급망 차원에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그 첫번째는 여타 대형 무역국에 비해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2022년 기준 대만이다. 대만의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8.8% 수준이다. 이어 한국, 일본, 미국, 호주까지 상위 5개국의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34.7%, 상위 10개각의 점유율은 55.6%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수입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비중은 16.5%, 상위 5개국 비중은 53.1%, 상위 10개국 기준으로는 68.6%에 달한다. 이어 일본, 독일, 한국의 경우도 상위 10개국 비중은 모두 60% 넘기고 있다. 중국 스스로가 수출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특정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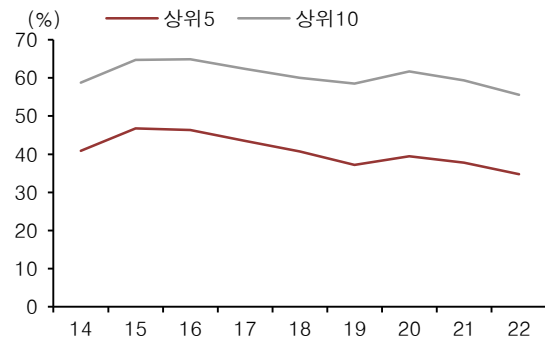
이는 최대 무역 경쟁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림 3 주요국의 수입 상위국 비중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의 수입 상위 5, 10개국 비중 추이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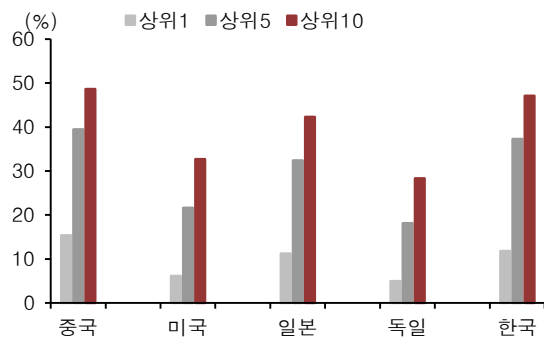
중국 공급망, 수입에서 특정 품목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반면, 중국의 공급망에서 특정 품목의 집중도는 여타 대형 무역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HSK 4자리 산업분류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8452)로 15.4%에 달한다. 이어 원유(2709), 철광석(2601), 석유(천연)가스(2711), 금(7108) 까지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5%, 기타 상위 10개 품목까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달한다.

이에 반해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품목 비중 1위를 기록한 원유 비중은 6.1%, 자동차(8703), 무선 전화기(8517), 컴퓨터(8471), 의약품(3004)까지 포함되는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21.6%,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은 32.7%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는 상위 5개, 10개 품목 비중이 각각 18.1%, 28.3%에 불과하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도 중국에 비해 상위 품목의 비중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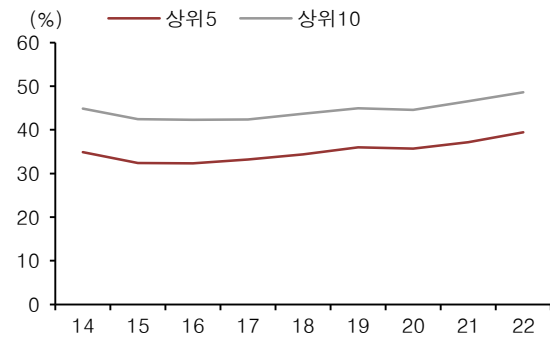
여기에 중국의 상위 품목 비중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오히려 점증하는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의 비중도 전체 수입 가운데 15%를 넘어서 유지되는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5 주요국의 수입 상위 품목 비중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의 수입 상위 5, 10개 품목 비중 추이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공급망 개편

공급망 개편, 특정국, 특정 품목 집중도 낮추는 방향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공급망 개편의 방향은 특정국, 혹은 특정 품목에 대한 지나친 편중을 해소하고 공급망의 단절, 혹은 장애가 자국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중국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2017년 21.58%, 2022년 16.53%).

한국의 대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가파르게 하락 중 중국의 경우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의 점유율은 이미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에는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도 10%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난해 말에는 월간 기준 6.3%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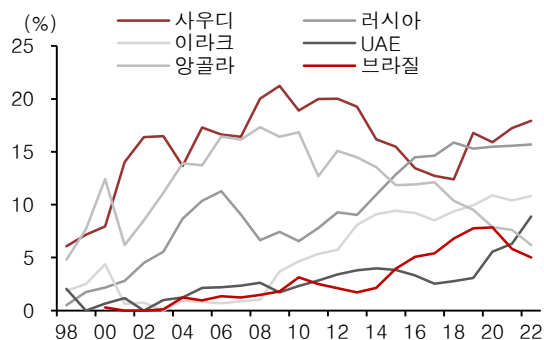
하지만 중국의 경우 특정 국가의 점유율 하락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품목의 점유율 개선은 쉽게 달성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상위 5개 품목, 10개 품목의 수입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입 상위 품목 원자재 다수 이는 수입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의 상당수가 원자재로 구성되어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중국의 산업 구조와 대규모 원자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품목과 관련한 중국의 공급망 개편 노력은 원자재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입선 다변화, 혹은 수입선 확대 방향으로, 이를 제외한 품목의 경우는 수입 대상국의 편중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중 가장 수입규모가 큰 원유의 경우 여러 산유국으로 다변화된 수입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개별적인 국가 점유율에는 부침이 존재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비중은 최대 21%(2009년)에서 현재 17%대까지 하락한 반면, 러시아의 비중은 2010년 6.6%에서 현재 15.7%까지 증가했다. 이밖에도 이란, 오만, 앙골라 등의 비중이 하락하고 이라크, 브라질, UAE의 비중이 상승해 BRICs 국가의 비중이 상승하고 산유국의 정치적 혼란 여부 등이 반영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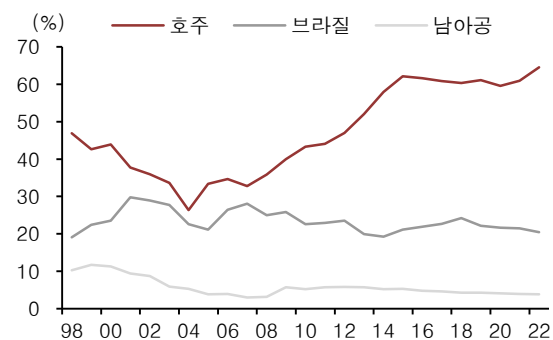
철광석, 구리, 콩 등 주요 원자재의 경우 각국별 수입 비중의 부침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대량 거래가 가능한 주요 수입 대상은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중국의 원유 수입 국가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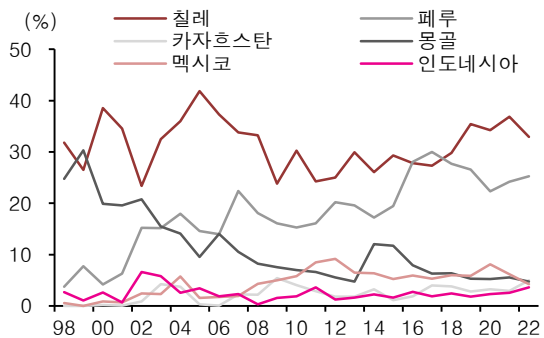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중국의 철광석 수입 국가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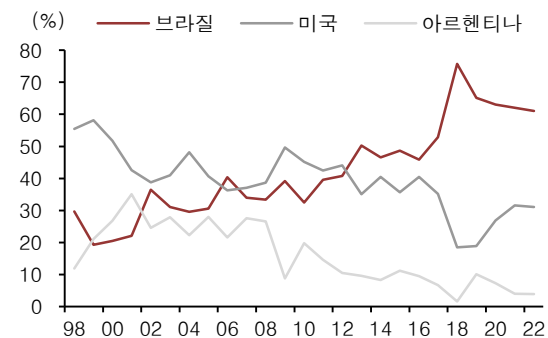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중국의 구리 수입 국가별 비중 추이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중국의 대두 수입 국가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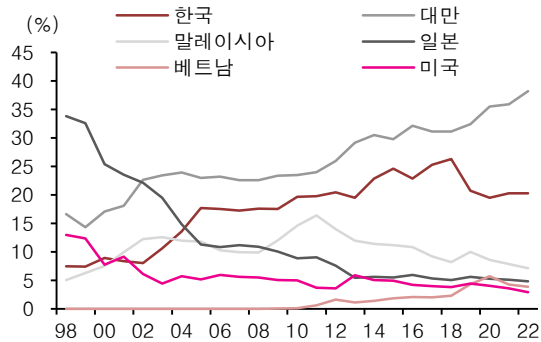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공급망 변화와 한국 수출

반도체, 비메모리
 대만 점유율 압도적,
 메모리 한국 비중
 점진적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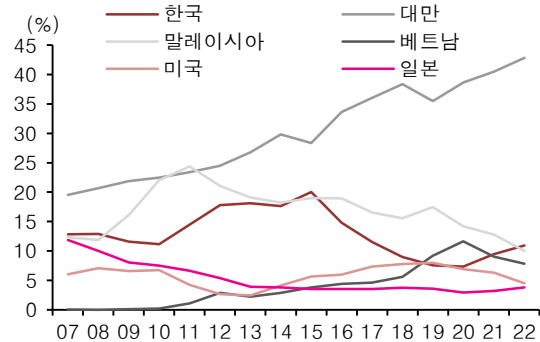
하지만 원자재 이외의 품목에서는 수입 대상 다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은 HSK 4자리수 기준으로 반도체(8542)다. 반도체 가운데 프로세서 등 비메모리 분야(854231)에서는 대만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며 미국, 일본을 포함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의 비중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메모리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가운데 제한된 국가가 참여하는 시장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점유율 하락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림 11 중국 반도체(8542) 국가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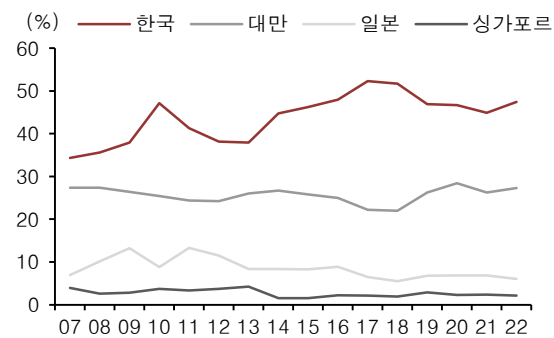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중국 비메모리 반도체(854231) 국가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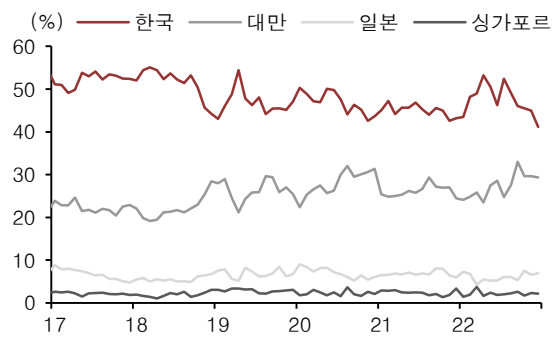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중국 메모리 반도체(854232) 국가별 수입비중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중국 메모리 반도체(854232) 국가별 수입비중(월간)



자료: KITA,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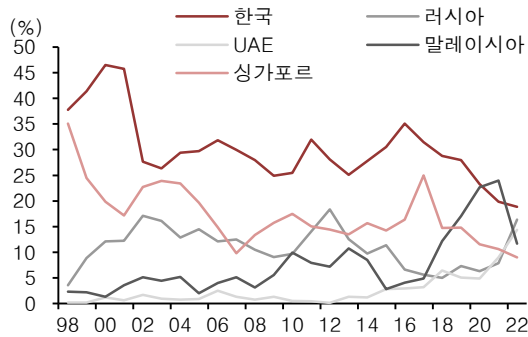
석유제품, 양극활물질, 반도체 이외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가운데 중국의 수입비중이 변화하고 있는 품목은 공급망 관리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최근 점유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품목으로는 원유를 제외한 석유제품(2710), 양극활물질(양극재, 2841), 화장품(330499) 등이 있다. 양극재의 경우는 한국 비중을 최근 일본이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는 모습이며, 석유제품, 화장품 등은 다수 국가간 경쟁으로 점유율 하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PET원료로 쓰이는 파라 자일렌(290243), 저장매체(스토리지, 847170), 컴퓨터부품(847330) 등은 다수의 경쟁국이 상존하는 가운데 점유율을 잃지 않고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품목이다.

중국의 공급망 변화가 특정한 국가나 품목을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후 최근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국제 교역에서의 분절화(fragmentation)의 추이를 감안할 때, 중국 공급망 내에서 점유율을 잃어가는 산업이 여럿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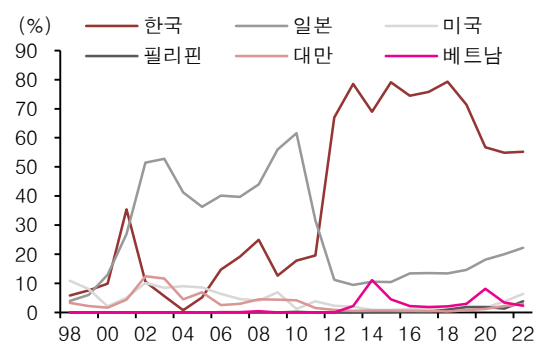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도의 명암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5 중국 석유제품(2710) 국가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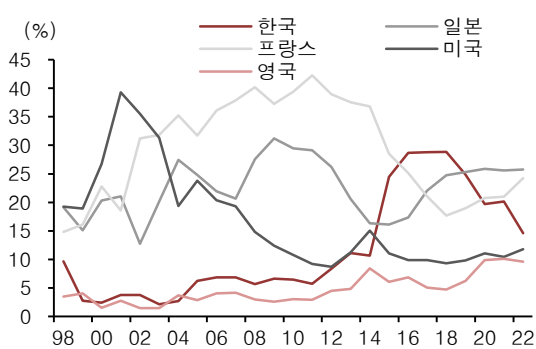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중국 양극재(2841) 국가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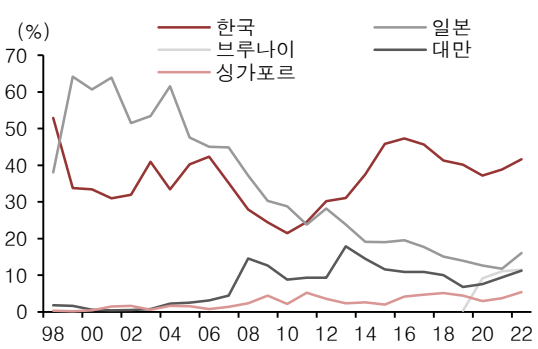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중국 화장품(330499) 국가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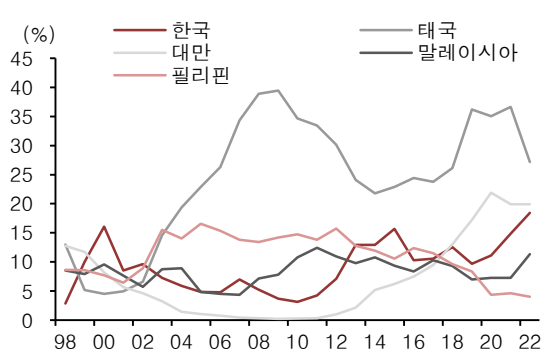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중국 파라자일렌(290243) 국가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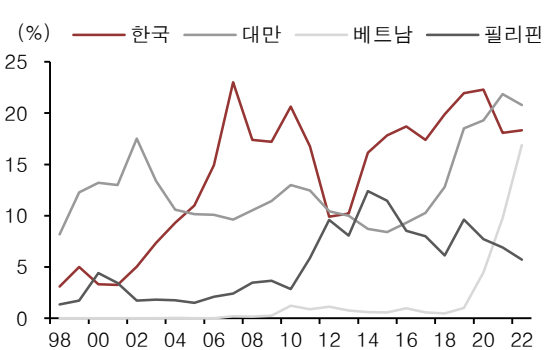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중국 스토리지(847170) 국가별 수입비중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중국 컴퓨터부품(847330) 국가별 수입비중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